

“봄기운 가득한 길을 걸어요”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건강걷기행사 ... 5월 3일 무주읍 나그네 가든서

2019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건강 걷기 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집결지는 무주군 무주읍 나그네 가든으로 걷기코스는 잠두길을 출발해 요대마을과 요대바위, 소이나투터를 거쳐 서면 마을까지 가는 7.5km 구간이다.

무주금강변 마실길 중 2코스는 걷기 좋고 아름다운 '전북 1000리길' 44곳 중 핵심 노선(14곳)으로 이전부터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힐링 명소다. 길 전체가 금강을 끼고 있어 걷는 내내 수변경관 조망이 가능하며 금강과 남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소이나투터는 수백 년간 무주와 금산(충남)을 잇는 길목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걷기행사는 지역 명소인 금강변 마실길(2코스)을 알리고 걷기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봄기운 가득한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무주군보건의



2019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건강걷기 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료원 통합건강증진팀에서 마련한 이동건강체험장 이용도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건강기초검사를 비롯한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공

해방지에 대한 내용,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식생활 개선,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살없는 마을 만들기 최선

진안군, 농약안전보관함 371가구 보급 완료

생명지킴이 활동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진안군이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진안읍 원반월마을 등 13개 마을 371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마쳤다.

진안군은 날로 심각해지는 농약 음독 사망자 감소와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공모사업에 신청해 전액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앞서 지난달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전달식과 사업설명회를 통해 보관함 사용법과 마을별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보관함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교육했다.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사용법과 주의점을 안내받은 주민들은 “사

용하고 남은 농약병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 늘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한곳에 모아놓고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하다”며 만족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위에서 듣게 되는 농약자살 소식이 더 이상 우리 동네에서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 같다”며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성을경 보건소장은 “이번 농약안전보관함 배부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관함 배부 이후에도 보관함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재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제45회 안전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잔치 '성황'

제45회 안전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지난 30일 안전면 다목적구장에서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출향 향우와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성하게 열렸다.

안전면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연과 신나는 예술 버스 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화사연씨가 공익장을, 깊은 애郷심으로 향우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환경진씨가 애郷장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안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전의 명예를 드높이고 안전면민의 귀감이 되신 한승현 전 감사원장에게 자랑스런 안전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기념식에 이어 초청가수 공연과 면민 노래자랑이 열리며 면민과 향우가 어우러져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최방규 안전면장은 “화창한 봄날 면민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바쁜 일정에도 고희를 찾아주시는 향우님들과 내·외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잘살고 행복한 안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실시

장수군, 아동사례관리사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장수군은 지난 30일 드림스타트 상담실에서 사례관리 직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은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관리 사례의 목표설정과 서비스 개입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음으로 통합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과정이다.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한은정 가족치료 전문상담사를 초청해 부모·가

족 분야(부모교육 등) 아동사례에 대해 전문가적인 개입 접근성 지도와 현재 관리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했다.

김덕남 실장은 “지속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전문가적인 견해를 듣고, 피드백 받음으로써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들의 꿈을 이루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용담 면민의회장 수상자 선정

공익장 배병선, 애郷장 최형진, 효열장 이용구씨

진안군 용담면(면장 최상오)이 제24회 용담면민의 날 면민의회장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공익장 배병선(64) △애郷장 최형진(65) △효열장 이용구(83)씨 3명이다.

공익장 배병선씨는 현재 용담면 화합위원회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면민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애郷장 최형진씨는 용담면 건설로 수몰된 황산마을 출신으로 면민의

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며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적을 인정받았다.

효열장 이용구씨는 젊은 시절부터 봄이 불편한 배우자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며 각종 면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면민의회장 시상식은 5월 11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용담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요”

무주군 설천면 주민들 꽃 거리 조성

무주군 설천면 시가지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다. 설천면도시재생자치위원회(가칭)가 주축이 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 등 20여 명의 주민들이 직접 꽃 거리(3km)를 조성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유깡통 등을 직접 수집해 세척, 페인트칠하고 꽃을 직접 심어 시내 권 상가 주변에 비치하거나 화분걸이를 이용해 벽에도 걸어 주는 사업을 진행(화분 250개)하고 있다.

무주군 설천면도시재생자치위원회 서병국 위원장은 “우리 면은 덕유산과, 구천동 계곡,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등 무주군 대표 관광지가 위치한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산뜻한 분위기에서 봄기운을 물씬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꽃 거리를 조성하게 됐다”며 “비록 재활용통에 심은 한 송이 꽃이지만 지역에 활기를 불

어넣고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겠다는 주민들의 정성이 꽃향기처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을



설천면도시재생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 등 20여 명의 주민들이 직접 꽃 거리(3km)를 조성하고 있다.

것”이라고 밝혔다.

설천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모 씨는 “정성껏 심어주시는 꽃을 가게에 거니까 장사도 잘될 것 같고 기분도 좋다”며 “좋은 뜻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